

下廬 黃德吉의 『初學可考』 고찰*

A Study on *ChoHockGaGo* by HwangDuckGi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1. 서 언	3.2 기술 방식
2. 저술의 배경	4. 내용 및 특징
2.1 저술의 동기	4.1 내용
2.2 저술 시기	4.2 특징
3. 체재 및 구성	5. 결 언
3.1 체재 분석	

< 초 록 >

황덕길은 退溪 李滉에서 시작하여 寒岡 정구(鄭述)와 星湖 이익(李瀾), 그리고 順菴 安鼎福으로 이어지는 星湖學派의 정통을 계승한 학자이며, 제자인 性齋 허전(許傳)에게 학문적 전통을 이어 준 인물로서 近畿 南人の 상징적인 존재로 20여 종의 저술을 하였으며 다른 도서의 편찬과 간행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본고에서는 황덕길의 저술 중에서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初學可考』를 대상으로 서지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 책은 황덕길의 문집인 『하러집』에는 이 저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장에 『初學編』이라는 저술이 기록되어 있는 『초학가고』이다.

연구내용은 이 책의 저술 배경, 체재 및 구성, 그 내용과 특징을 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初學可考』 내용은 天文 및 地理에서부터 人倫·制度·動物·算數·度量衡·兵仗器·經書에 대한 지식·일반 상식 등 초학자들이 학문에 임하는 자세와 독서 과정에 대한 안내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要語: 황덕길, 『초학가고』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4년 5월 27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HwangDuckGil was a prominent orthodox scholar of the “SungHoSchool” which emerged from the teachings of Lee-Hwang. Later scholars following these teachings include Jung-Gu, Lee-Ick, Ahn-JungBock and Heo-Jeon, HwangDuckGil’s best pupil. HwangDuckGil played a key role as are presentative of “Gyeonggi Nam-In” compiling a collection of books which included twenty of his own works. This article examines *ChoHockGaGo* in terms of bibliography. *ChoHockGaGo* is a manuscript among HwangDuckGil works and it was not included in his work, *HaReouGip*, instead, it was included in his biography, *ChoHockPeun*. This *ChoHockPeun* seems to be called *ChoHockGaGo* It is assumed that HwangDuckGill wrote the book at age 38 during the period when he produced *IlWongJipYo*. However others contest that is was written when he was age 71 years after he completed “DockSeoChaJaeDo” and “IlSungDo”. *ChoHockGaGo* is a guide book for academic learners. Its contents includes teachings on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ethics and morality, system and organisation, animals, arithmetic, weights and measures, weaponry, the Chinese classics.

Key words: HwangDuckGil, *ChoHockGaGo*

1. 서 언

본고는 下廬 黃德吉(1750~1827)의 편저서를 고찰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 중의 하나로 시도된 것이다. 황덕길은 조선조의 유학자로서 退溪 李滉에서 시작하여 寒岡 鄭述와 星湖 李瀼, 그리고 順菴 安鼎福(1712~1791)으로 이어지는 星湖學派의 정통을 계승한 학자이며, 제자인 性齋 許傳(1797~1886)에게 학문적 전통을 이어 준¹⁾ 인물로서 近畿 南人이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황덕길이 전형적인 유학자로서 도서의 저술 및 편찬에 관심이 많았고, 적지 않은 저술을 남기고 있으며 다른 도서의 편찬과 간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황덕길의 문집인 『下廬集』 중 盧相稷의 後識에 의하면 황덕길은 많은 도서를 저술하였으며, 스승인 안정복의 문집의 간행을 위해 직접 교정·편집하는 등 각종 도서의 편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하였다. 노상직이 언급한 황덕길의 저술은 약 20여 종인데,²⁾ 이중에는 현재 전하는 것도 있고 전하지 않는 것도 있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도서의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서지학적 관점에서 황덕길을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도서 편찬자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황덕길의 저술 중에서 단행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初學可考』³⁾를 텍스트로 선정하여 서지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황덕길은 초학자들이 天文·地理에서부터 역사와 일반 상식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初學可考』라는 제목으로 편집하고 저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시대 초학자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實例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황덕길의 저술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의 하나로, 나아가 조선조 초학자 교육교재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본고의 주요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下廬集』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황덕길의 저술로 분명히 밝혀져 있다.

1) 강동욱,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 『南冥學研究』 제31집, 207.

2) 노상직의 정리에 의하면 황덕길이 저술한 책은 총 19종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3) 黃德吉, 『初學可考』 (부산대 1-10-13).

『하려집』에는 이 저술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장에 『初學編』이라는 저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⁴⁾ 아마도 이 『초학가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저술의 배경

2.1 저술의 동기

현재 전하는 『초학가고』는 전사본으로 序文이나 後跋 등이 전혀 전하지 않아 실질적인 저술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황덕길은 주요 저술의 경우, 예를 들면, 『東賢學則序』, 『三子實記序』 등과 같이 『下廬集』에 서문이나 관련 기록을 수록해 놓은 예가 많은데 이 책에 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황덕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었던 안정복과의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정복은 29세(1740, 영조 16, 庚申)에 『下學指南』을 저술했다. 안정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술의 동기를 밝혔다.

예로부터 배우는 자의 걱정은 대부분 먼 것에 힘쓰며 가까운 것을 소홀히 여기는 데에 있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해, 하루 12시간으로 분배하여 조목을 정하고 여기에 옛 성현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 중에서 下學에 해당하는 것을 배열했다. 『下學指南』이라고 이름을 붙여 평생 동안 사용할 자료로 삼는다.⁵⁾

안정복은 유학자로서의 실천을 중시하면서 자신을 경계할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다. 안정복이 書名으로 사용한 ‘下學’이라는 개념은 일상의 가까운 사물에 대한

4) 『下廬集』 『行狀』. “又作 大學中庸朱書講義 經訓四教錄 四書輯錄 洙泗淵源錄 道東淵源錄 增補聖賢群輔錄 撫見錄 語類纂 初學編 昭代衍編 古史詳攷 等書.”

5) 『順菴集』 『年譜』. “十六年庚申 先生二十九歲 撰下學指南 先生以爲古來學者之患 多在於務遠忽近 乃於身心日用所當行之道 分排十二時 又列定條目 附以古聖賢嘉言善行 屬於下學者 名之曰下學指南 以爲平生取用之資.”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上達’할 수 있다는 유학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유래했다.⁶⁾ 황덕길의 號가 ‘下廬’인 것도 이러한 가르침을 지켰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下廬銘』의 并序에서 ‘下學而上達’이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의 방식임을 분명하게 밝혔다.⁷⁾ 따라서 황덕길이 『하학지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영향의 결과가 『初學可考』의 저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이 과정에서 『하학지남』을 본받은 황덕길의 저술로 『日用輯要』가 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저술은 유학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고 말뚱뚱하면서까지 나란히 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나이가 어느새 이렇게 되어, 감히 이전 유학자들이 어린 학동을 가르치던 여러 서적을 모아 보았다. 이 책은 무릇 18편인데 庸言과 庸行을 말한 것이다. 주역에 ‘옛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덕을 쌓는다’고 했으니 아마도 날마다 행동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살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⁸⁾

위의 인용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감히 이전 유학자들이 어린 학동을 가르치던 여러 서적을 모아 보았다(乃敢哀輯先儒氏訓蒙羣書).’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황덕길의 주변을 지속적으로 살펴본 결과 황덕길의 이러한 진술은 이전의 초학자 교재 중 유학자들이 편찬한 것은 빠짐없이 다 모으고 열람한 뒤에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초학가고』와 『일용집요』는 저술의 의도나 시기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황덕길의 말은 『初學可考』의 저술 동기 및 시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없지

6) 『論語』「憲問」. “子曰 不怨天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7) 『下廬集』 권12, 『下廬銘』. “故君子知下而下之 以禮下於人 在下不援上 下學而上達 下下之道至矣.”

8) 『下廬集』 권10, 序, 『日用輯要序』. “余少也 呻其佔畢 跂焉思齊 未有獲也 齒髮遽如許矣 乃敢哀輯先儒氏訓蒙羣書 書凡十有八篇 言庸言也行庸行也 易曰前言往行以畜德 庶或自省於日用之功云爾.”

않다. 황덕길이 『일용집요』를 저술한 것은 그의 나이 38세(1787, 정조 11, 丁未) 때이다. 장년의 나이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학문을 일부 반성하면서 학문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까닭으로 황덕길은 이전의 유학자들이 학동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교재를 다시 한 번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일용집요』가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학가고』가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황덕길은 이전의 훈몽교재를 살펴보면 『일용집요』와는 달리 더욱 기초적인 초학자 교육 교재를 편집·저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사실 『일용집요』는 유학자로서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학가고』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동들에게,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황덕길은 가장 기초적인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로 인해 이 책이 저술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성호학파에는 전통적으로 ‘疾書’라는 독서법이 있었다. 이것은 독서나 저술 중에 생각나는 부분을 즉시 메모하여 자신의 학술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익이 주로 사용한 疾書는 회의를 통해 본지를 자득하여 주견을 확립하는데 효과적인 독서법으로 학문탐구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견지하면서 경전의 대의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식이었다.⁹⁾ 이 방법이 황덕길에게도 전승되어 『초학가고』의 초고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2 저술 시기

이 책의 저술 시기는 불분명하다. 다만, 여러 상황으로 보아 두 시기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황덕길이 『일용집요』를 저술·편집할 시기에 이 『초학가고』도 편찬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 타당할 것이다. 황덕길은 당시 38세였는데 이전 해에는 『東賢學則』을 편집했고 다음해에는 『增補聖賢群輔錄』을 저술했다

9)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讀書論과 講論 방식,” 『한국사연구』 vol.12(2003), 180.

는 사실로 볼 때, 이 시기에 『초학가고』를 편집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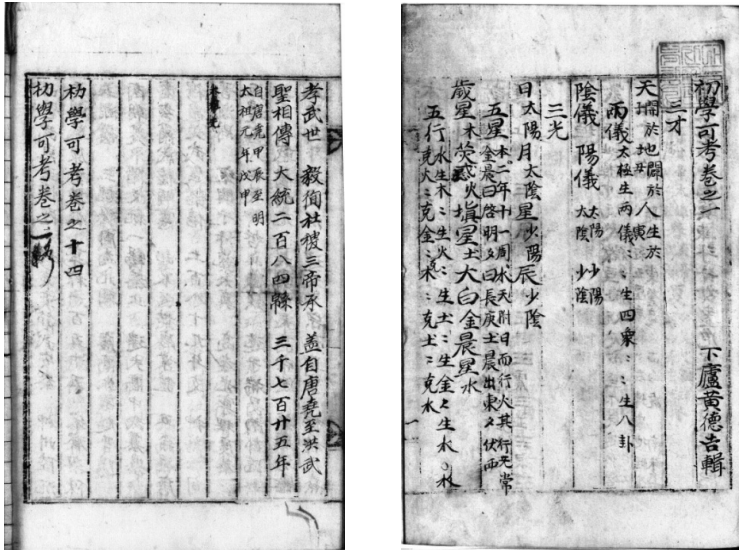
그리고 그는 71세(1820, 순조 20, 庚辰)에 『讀書次第圖』와 『日省圖』를 완성했는데, 그 내용은 초학자들이 학문에 임하는 자세와 독서 과정에 대한 안내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학동들의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 이 책을 편찬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체재 및 구성

3.1 체재 분석

현전하는 필사본 『초학가고』의 첫 장 첫 행을 보면 권두제로 ‘初學可考卷之一’이라고 되어있고 아래에는 ‘下廬黃德吉輯’이라고 되어 있어 황덕길의 저서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서문이나 발문 없이 36장으로 성책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 1권 1책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말의 마지막 행에는 ‘初學可考卷之十四’와 ‘初學可考卷之一’이라는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다. 마지막 행의 ‘初學可考卷之一’ 아래에는 행서체로 ‘終’字가 첨기되어 있어 이 책의 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初學可考』는 원래 14권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 책의 광범위한 내용이 단지 1권만으로 편차가 정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도서의 편집과 정리에 경험이 많은 황덕길이 내용의 부문을 나누지 않고 1권으로 편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래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던 『초학가고』를 傳寫하는 과정에서 각 권을 나누지 않고 이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사자가 첫 장 첫 행에서 ‘初學可考卷之一’이라고 전사를 시작하였으므로 마지막에 ‘初學可考卷之一終’이라고 마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원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4권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림 1> 『초학가고』 첫 장과 마지막 장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初學可考. 黃德吉 輯. 筆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36張 : 四周雙邊 半郭 19.6 x 14.8 cm, 有界, 10行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內向2
葉花紋魚尾 ; 26.3 x 18.0 cm

3.2 기술 방식

이 책은 주제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항목명은 상란에서 한 글자 내려졌고, 내용은 상란에 붙여 썼다. 주제나 내용에 대해 보충할 것이 있으면 아래에 소자쌍행으로 기록해 놓았다. 소제목 안에 몇 개의 항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다른 구별이 없다. 예를 들어 ‘五星’이라는 항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오성 목성은 12년에 하늘을 한 번 운행한다. 수성은 하늘에서 해에 붙어 운행한다. 화성은 운행에 일정함이 없다. 금성은 새벽에는 계명성이라 하고, 저녁에는 장경성이라 한다. 토성은 새벽에는 동쪽에서 나오고 저녁에는 서쪽에 숨어 있다.
 五星本二年十一周¹⁰⁾ 水天附日而行 火其行無常 金晨日啓明夕日長庚 土晨出東夕伏西
 歲星木 熒惑火 填¹¹⁾星土 太白金 晨星水

위의 경우,五星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오성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이 필요하면 소재목 밑에 註解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행을 나누어 본래 오성에 대한 내용을 실어 놓았다. 내용 중에도 설명이 필요하면 小註를 첨기하였다.

소자쌍행으로 첨기하는 小註에는 인물의 경우, 字號나 관직 등을 기록하였고, 도서의 경우는 저자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해의 편리를 도모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출처를 밝혀 놓았다. 예를 들면, <一元大數>라는 항목에서는 時·日·月·年·世·運·會·元 등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을 송나라 때의 학자인 邵雍이 저술한 『皇極經世書』에서 인용했음을 밝혔다(<그림 2> 참조).

그리고 황덕길은 개인적으로 존경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으면 자호를 앞세우고 본명은 小註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本朝五賢>의 항목을 예로 들어 본다.

金寒暄堂名宏弼字大猷 鄭一蠹名汝昌字伯尉 趙靜庵名光朝字孝直 李晦齋名彥迪字復古 李退溪名滉字景浩

위의 金宏弼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등은 영남 사림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황덕길로서는 직접 본명을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학가고』에서 유일하게 이 항목에서만 자호를 본명에 쓰고 이름을 小註로 병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참조).

10) 이것은 전사자의 실수이다. ‘本’은 ‘木’의 오기이고, 목성은 12년에 한 번씩 하늘을 운행하므로 ‘十二年一周’라고 표기해야 한다. 원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이다.

11) 填星 혹은 鎮星이라고 한다. 이 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적이나 백과사전류에서 鎮星이라고 하는데 『漢書』 『律曆志』에서는 填星이라고 한다.



<그림 2> 一元大數 항목



<그림 3> 本朝五賢 항목

본고의 텍스트인 『初學可考』는 현재 조사한 바로는 부산대 소장의 필사본만이 전하고 있는데, 誤字와 脫字가 다수 눈에 띄고 서체가 조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필사자가 전사한 것을 그 후에 입수한 어떤 사람이 교정하기 위해 가필한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서체는 해서가 기본이나 서체가 다르므로 한사람에 의해 필사된 것은 아니며, 서사 능력도 매우 졸렬하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필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학자가 자신의 학습용으로 轉寫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체 및 글자의 大小 등의 배열 상태가 엉성하다. 후반부에는 매우 정갈한 해서체로 쓰여진 부분도 있으며 약간 행서체와 가까운 글씨로 쓰인 부분도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 사람이 필사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어 썼을 수도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인데, 전자의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일용집요』¹²⁾의 필사 상태는 서사에 능숙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달필의 서체가 우선 눈에 띄고 자간이나 행간의 배열도 세련된 점이 있어, 『초학가고』의 필사 상태와 비교가 된다.

12) 국립중앙도서관 (한고朝17-167)

『日用輯要』.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41張.

4. 내용 및 특징

4.1 내용

『초학가고』의 내용은 天文 및 地理에서부터 人倫·制度·動物·算數·度量衡·兵仗器·經書에 대한 지식·일반 상식 등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의 거의 전 영역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초학가고』 수록 주제항목

三宰	兩儀	三光	五星
五行	八卦	三垣	二十八宿
十二月卦	二十四節	右十天干	右十二地支
四方	九州	五嶽	四瀆
五官	五性	四端	七情
五臟	六腑	五倫	三尊
三族	五服	皇極四時	三教
封爵五等	三公周	六卿	四民
四學	六行	六德	六藝
四科	九思	九容	四勿
三省	三貴	四教	九德
三知	三行	三希	六有
十三經注疏	九經字數	三易	詩六儀
書六體	易十翼	易四道	洪範九疇
春秋五始	女四書	中庸三大綱	大學八條
小學三大綱	九經大旨	四部書	二十一史
五禮	四聲	八音	五色
五福	六極	三不朽	女四行
六書	書八體	九穀	三着
五味	五臭	五則	五度
五量	五權	五蟲	四靈
昆蟲五倫	六畜	文房四友	五兵
三革	五刑	三教	四裔
中國四域	十三省	外五嶽	五神名
九倍數	人壽稱	一元大數	三皇

五帝	三王	五霸	兩漢
三國	六朝	五季	胤業四君
三朝鮮	三韓	三國	五聖
十哲	宋七賢	東國四賢	本朝五賢
黃帝七輔	二史	顛項五正	唐堯羲和四子
虞舜九官	商湯二相	三仁	右公二子
周三母	十亂	中興四臣	列國六師
漢三傑	常山四皓	麒麟閣十一名臣	存經四儒
東漢雲臺二十八將	三軍	八俊	八顧
建安七才子	蜀漢五虎	吳四將	晉竹林七賢
五公	宋三謝	唐凌烟閣二十四功臣	五王
開元四相	詩三大家	宋昭勳崇德閣二十四名臣	四賢
中興四將	三大忠	詩五家	皇明開國三十三功臣
遜國六臣	三大功	三楊	理學七賢
十一大家	東林二賢	天啓六諫臣	永曆二郎
帝王廟從祀三十一名臣	武成王廟武將十哲	古今二十四孝子	六字
唐宋八大家	四史家	古今書品十八	武經七家
文宣王廟從享四十八人	三國五十名臣	高麗崇義殿配享十六名臣	三隱
本朝開國四勳	乙亥六臣	生六臣	乙巳九諫
戊午四賢	士林四賢	退門八賢	丙子斥和五節
己亥禮論四臣	己巳三節	文章四家	詩家三唐
筆苑三家	文廟從享十六人	八賢相	壬辰二勳
癸未三竄	朋黨錄	東人	西人
大北	小北	老論	少論
清南	濁南	蕩論	海東八路
六京	八路鎮山	六大川	關東八景
八丈夫贊	黨論首尾大概	歷代引	

4.2 특징

『초학가고』의 내용은 앞부분은 天文 및 地理에서부터 人倫·制度·動物·算數·度量衡·兵仗器·經書에 대한 지식·일반 상식 등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의 거의 전 영역에 걸친 200개의 항목은 간략히 서술하였으나, 책 뒷부분에는 앞의 항목의 내용과 서술 방식이 다른 八丈夫贊, 黨論首尾大概, 歷代引이 수록되어 있다.

『초학가고』 중 서술 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1 역사와 인물에 대한 내용

『初學可考』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이다. 중국 역사의 경우, 三皇五帝에서 禹·湯·武의 三王과 춘추시대의 五霸, 전국시대의 七雄에 이어 兩漢, 三國, 六朝, 五季를 항목별로 나누어 말했고, <勗業四君>의 항목에서 漢太祖,¹³⁾ 唐太宗, 宋太祖, 明太祖 등을 언급했다. 원나라와 청나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민족에 의해 세워진 나라여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황덕길이 중국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일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三朝鮮>의 항목에서 檀君朝鮮과 箕子朝鮮, 衛滿朝鮮을 말하였고, 이어서 三韓, 三國, 高麗, 朝鮮으로 계승되는 우리나라의 정통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황덕길은 『초학가고』에서 특히 역사적 인물의 성공적인 예를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麒麟閣十一名臣>과 <東漢雲臺二十八將>, <唐凌烟閣二十四功臣> 등이다. 麒麟閣은 한나라 때 長安의 未央宮 안에 있던 전각의 이름으로, 宣帝(기원전74~기원전49)가 이곳에 霍光을 비롯한 11명의 功臣들의 얼굴을 丹青으로 그려 걸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千字文』에서 ‘宣威沙漠 馳譽丹青’이라고 칭송하였으니 여기에 포함된 인물들의 명예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후한의 光武帝가 한나라 중흥의 명장 등우(鄧禹)를 비롯한 28명의 화상을 그려 놓은 <東漢雲臺二十八將>이 있으며, 당나라의 太宗이 개국공신 24명의 초상을 걸어두었던 누각인 凌烟閣의 <唐凌烟閣二十四功臣>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는 기린각이나 운대, 凌烟閣에 초상이 걸린다는 것은 출세와 명예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13) 漢나라의 시조인 劉邦은 보통 高祖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태조라고 기술하였다. <兩漢>의 항목에서도 太祖라고 했는데 小註에는 劉邦이라고 명기했다.

황덕길은 이어서 송나라 때의 <宋昭勳崇德閣二十四名臣>과 명나라의 <皇明開國三十三功臣> 등의 항목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수록해 놓았다. 그리고 역대 제왕의 사당인 帝王廟에 배향된 31명을 나열한 <帝王廟從祀三十一名臣>과 무신 중심의 <武成王廟武將十哲> 등도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황덕길의 이러한 내용을 강조한 것은 초학자들이 이들을 본받아 입신출세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덕길은 전형적인 유학자로서의 자세를 평생 간직하고 있던 인물이었다.¹⁴⁾ 그런데 여기에서 이처럼 명예와 功業을 완수한 인물들을 강조하여 말했다는 것은 표면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평소 견지하고 있는 학문적 자세는 개인적인 것이다. 초학자들에게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교재에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친 생각이 될 것이다. 황덕길은 한 인간의 생애에서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4.2.2 중국과 한국의 인물에 대한 적절한 배열

황덕길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서술하면서 중국에 치우친 기술을 하지 않았다. 내용상으로 보면 중국 인물에 관한 기록이 더 많지만, 이는 원래 중국 인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물을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송나라 때의 신유학자 7명을 선정하여 기록한 <宋七賢>의 항목 바로 이어, <東國四賢>과 <本朝五賢> 등의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유학자를 기술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여 말했는데, 그 뒤에는 우리나라의 인물에 대한 기록인 <三國十五名臣>, <高麗崇義殿配享十六名臣> 등을 포함하여 21항목에 걸쳐 우리나라의 인물을 분야별로 수록해 놓았다.

14) 김순희, “황덕길의 독서론 고찰,” 『서지학연구』 53집(2012. 12), 221-238.

4.2.3 전형적인 유학자의 자세

황덕길은 초학자들을 위한 교재를 편찬하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예를 들면, 『論語』 『衛靈公篇』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묻자, 공자가 ‘하나라의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였다.¹⁵⁾

이에 대해 朱熹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하나라의 시간이라는 것은, 복두칠성의 자루가 날이 처음 어두울 때에 寅方을 가리키는 달로써 正月을 삼는 것이다. …(중략)… 하나라에서는 寅月을 (정월로) 사용하였다.¹⁶⁾

음력 정월이라는 달은 子月, 丑月, 寅月 등 3개의 달 중에서 어느 것을 써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공자가 하나라의 시간, 즉 인월을 쓰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황덕길은 유학자로서 공자 및 주자의 학설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古十二地支>의 항목에서 12지지의 고문을 말하면서 攝提格, 즉 인월의 고문을 맨 처음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앞의 항목인 <古十天干>에서 ‘甲’의 고문인 ‘闕逢’부터 시작한 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

황덕길은 전통적인 유가 경전에서 학동들의 행동거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규범을 추출하여 제시하기도 했다. 『周禮』에서 ‘六德’, ‘六藝’ 등을 선정하였고, 『論語』에서 ‘四科’, ‘九思’, ‘四勿’, ‘三省’ 등의 조목을 선정한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論語』의 ‘九思’와 『禮記』의 ‘九容’을 제시하면서 『書經』에서 皋陶가 말한 ‘九德’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송대의 신유학자인 周敦頤가 말한 ‘三希’¹⁷⁾와 張載가 말한 ‘六有’¹⁸⁾를 추가한 것도 있다. 황덕길은

15) 『論語』 『衛靈公篇』. “顏淵 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16) 위의 책, 朱子註. “夏時謂以斗柄 初昏建寅之月, …(중략)… 夏以寅.”

17) 황덕길, 『初學可考』.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이들에 대해서 ‘周子’와 ‘張子’ 등으로 호칭함으로써 존중하는 뜻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황덕길이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학가고』를 편집하는 처음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十哲’의 항목에서는 공자의 제자 중 10대 제자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원래 이 말은 『論語』에 나오는 말인데, 황덕길이 말한 十哲은 『논어』의 내용과 다르다. 원래 『논어』에서 말한 십철은 ‘四科十哲’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德行·言語·政事·文學 등의 네 분야에서 각각 가장 뛰어난 제자를 말한다. 덕행에는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이고, 언어에는 宰我·子貢이며, 정사에는 冉有·子路이고, 문학에는 子游·子夏를 말한다. 그런데 황덕길은 공자의 수제자인 顏淵을 빼고 子張이라는 제자를 추가했으며, 四科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논어』라는 경전의 권위를 감안할 때, 위의 제자들에 대해 마음대로 침삭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조선 초기에 유학을 국교로 신봉하면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文廟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配享의 문제가 발생했다. 문묘에는 공자 아래에 顏子·曾子·子思·孟子 등의 4명의 배향위가 있다. 顏子(顏淵)의 경우, 배향위에 있으면서 십철에 포함되므로 중복됨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안연 대신에 子張을 십철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지금의 문묘에도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¹⁹⁾ 따라서 황덕길도 당시 문묘나 향교에 있는대로 자장을 십철에 포함시킨 것이다.

‘六書’의 항목에서는 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諧聲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현재 문자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정리한 象形·指事·形聲·會意·假借·轉注를 육서법의 대강으로 알고 있는데, 황덕길이 말한 것은 허신의 견해와 명칭과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處事は 指事に 해당하고 諧聲은 形聲의 뜻과 같으므로 내용이 다르지 않다.²⁰⁾ 그 이유는 황덕길

18) 위의 책. “言有法 動有教 晝有爲 宵有得 瞬有養 息有存.”

19) 『태종실록』 4년 갑신조. “성국공 曾자와 기국공 子思를 先聖의 配享位로 올리었다. 처음에 증자는 十哲의 位에 있고, 자사는 從祀의 列에 있었는데, 좌정승 河崙이 사명을 받들고 入朝하였다가 두 분의 圖像을 얻어 가지고 와서 헌의하여 像을 만들어서 배위에 陞享시키고, 또 子張의 像을 만들어서 十哲에 參列시키었다.”

20) 林尹, 『文字學概說』(臺北, 正中書局印行, 民國60년(1971)), 52.

이 許愼(30~124)의 『說文解字』보다 시대적으로 약간 앞서는 鄭衆(?~88)의 『周禮解詁』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說文解字』보다는 유교의 경전인 『周禮』를 해설한 『周禮解詁』를 우선시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2.4 황덕길의 한계

황덕길은 초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책을 편찬하면서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남 사림의 정통을 잇는 학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士林四領袖>, <退門八賢>, <己亥禮論四臣>, <癸未三黨> 등의 항목을 들 수 있다.

<士林四領袖>에서 황덕길은 柳成龍, 金孝元, 李潑, 金應南 등을 거론했다. 이 항목의 소주에 ‘선조조에 조정의 논의가 분당이 되어 동인과 서인의 지목이 있었는데 4명이 사림의 영수가 되었다(宣廟朝 朝議分黨 有東西之目 四人爲士林領袖).’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4명은 모두 東人 계열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황덕길은 <朋黨錄> 항목의 <東人>조에서 이 4명을 모두 기록해 놓았다. 보통 領袖라는 말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동인과 상대적인 정치 세력이었던 西人의 영수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약간 편협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退門八賢>의 항목에서는 퇴계 李滉의 문하에서 중요한 제자 8명을 선정하였다. 이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퇴계는 훌륭한 스승으로서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인물이지만, 퇴계와 동등하게 평가받는 율곡 李珥와 그의 문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己亥禮論四臣>의 항목은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여준다. 己亥年(1659)년에 발생한 ‘己亥禮訟’과 다음에 이어진 ‘甲寅禮訟’은 예송에 얽힌 당쟁의 실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효종이 즉자, 효종의 모후(계모)인 자의대비(자비)의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宋時烈과 宋浚吉을 중심

으로 하는 서인들은 기년상을 주장하였고, 許穆과 尹鏞 등의 동인 계열 인물들은 3년상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인들의 견해가 채택되었으며, 동인의 대표격인 尹善道가 유배를 간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황덕길은 송시열 등 서인계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논쟁에 패배한 4명을 존송하는 듯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소제목 아래의 小註에서도 ‘효종이 돌아갔을 때 잘못된 예를 논했다(孝廟大喪 論其誤禮).’라고 하여 공정하지 못한 견해를 드러냈다.

<癸未三竄>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동서 분당 이후 李珥를 비난하는 동인들의 상소가 잇달았다. 그중에서도 宋應漑와 許筠, 朴謹元 등이 계미년(1583, 선조 16)에 이이에 대한 비난 상소를 그치지 않자 선조가 박근원은 평안도 강계로, 송응개와 허봉을 각각 함경도 회령과 갑산으로 귀양보낸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율곡을 지나치게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일선에 축출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당쟁의 와중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당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2.5 <黨論首尾大概> 항목의 贗作 가능성

황덕길의 『初學可考』에서 가장 특별한 내용을 말하자면, 곧 <黨論首尾大概>이다. 이 항목은 저술의 거의 말미에 실려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조 당파의 분당과 갈등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밀하게 살펴보면, 황덕길이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없을 수 없다.

먼저, 이 내용이 황덕길이 처음 편찬한 『初學可考』에는 없었는데 필사자가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이 글은 다른 항목의 내용과 서술 방식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항목은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단어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혹 小註에서 문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코

긴 문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 <黨論首尾大概>는 하나의 완벽한 論說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글의 길이만 해도 6면 여에 이른다. 대부분의 항목이 1~2행 혹은 길어도 몇 행을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크게 다르다. 이것은 『初學可考』의 편찬 의도와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처음 학습을 시작하는 학동들에게 과당과 당쟁의 역사를 이토록 자세하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 책에는 <朋黨錄>의 항목이 있어 사색 당과를 설명한 것이 있다. 둘째, 이 책은 처음부터 항목이 나뉘었다고 해서 행간을 띄우지 않았는데, 유독 이 글과 바로 앞에 있는 <八丈夫贊>만은 행간이 1칸 띄어져 있다. 셋째, 황덕길의 문집인 『下廬集』을 조사해보아도 동서 분당과 당과 분쟁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도 참고가 된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이 글은 황덕길이 원래 편찬한 『초학가고』에는 없었는데 후대의 필사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언

본고의 연구대상은 下廬 黃德吉(1750~1827)이 초학자의 교육 교재로 편찬·저술한 『初學可考』이다. 황덕길의 저술은 약 20여 종이며 간접적으로 도서의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황덕길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도서 편찬자이다.

황덕길은 스승 안정복이 지은 『下學指南』의 영향을 받아 『日用輯要』를 저술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시기 즉, 그의 나이 38세(1787, 정조 11, 丁未) 경에 『初學可考』도 편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그는 『東賢學則』을 편집했고 다음해에는 『增補聖賢群輔錄』를 저술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으므로 『初學可考』의 편찬도 이 때일 것으로 추정된다.

『초학가고』의 내용은 天文 및 地理에서부터 人倫·制度·動物·算數·度量

衡·兵仗器·經書에 대한 지식·일반 상식 등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의 거의 전 영역에 이르고 있다. 『初學可考』의 내용 중에서 역사와 인물에 대한 항목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초학자들이 이들을 본받아 입신출세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비율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데, 여기에서 그의 자주적 견해를 알 수 있다. 孔子 문하의 十哲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論語』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文廟에 배향된 것에 따라 子張을 십철로 선정된 것에서도 자주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황덕길은 이 책을 편찬하면서 전형적인 유학자의 자세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孔子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든지, 특히 송대의 신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說文解字』의 ‘六書法’보다 경전에 가까운 鄭衆이 『周禮解詁』에서 제시한 사항을 따른 것은 그의 특별한 관점이다.

그러나 황덕길은 동인 계열의 영남학파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점은 이 책에서와 황덕길의 편찬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황덕길이 당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객관적인 편찬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黨論首尾大概> 항목의 贗作 가능성은 이 필사본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 글은 다른 항목의 내용과 서술 방식이 현격하게 다르고 내용이 장황하게 길며, 초학자들이 굳이 학습해도 되지 않을 내용이라는 점에서 후대의 어느 필사자가 임의로 덧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작업으로 황덕길의 저술은 물론, 그가 편집과 간행에 관여한 모든 도서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初學可考』의 위상과 가치가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